

비상경제장관회의 **경제부총리** 모두발언(3.13)

-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.
- 최근 우리 경제는 **완만한 회복**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.
 - 수출 회복 등에 힘입어 9개월 연속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
* 경상수지(억불) : ('23.1/4)△60 (2/4)71 (3/4)156 (10)74 (11)39 (12)74 ('24.1)30
 - 조금 전 발표된 고용률도 61.6%로 2월 기준 역대 최고를 달성한 가운데, 제조업·서비스업·건설업 모두 고용이 증가하며 30만명대의 취업자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
- 하지만 3월이라서 봄인 것이 아니라 **따뜻해져야 봄인 것처럼, 지표상 회복** 흐름과 달리 체감경기는 여전히 온기 확산이 더딘 상황입니다.
 - 건설투자의 경우 그동안의 수주부진 영향이 지난해 말부터 가시화되고 있고,
 -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의 영향으로 취업준비 청년과 중소기업 근로자를 중심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.
- 두 바퀴의 크기가 맞아야 수레가 앞으로 갈 수 있듯이 정부는 수출과 내수가 “**균형잡힌 회복**”으로 갈 수 있도록 민생회복과 경제역동성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.
 - 지역투자 활성화와 공공부문 선도 등을 통해 건설투자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곧 마련해 발표할 예정입니다.
 - 사회이동성 제고를 위한 대책도 다음달까지 마련하여 신속히 체감 가능한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.

[**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**]

- 이에 앞서, 청년세대의 취업·창업·소비 선호도가 높은 웹 콘텐츠 창작과 웨딩·뷰티 서비스를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.

- 먼저 웹툰·웹소설·영상제작 크리에이터 분야는
창작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,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.
 -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표준계약서를 보급하고,
악성댓글에 신속 대응하도록 제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습니다.
 - 기업이나 에이전시에 속하지 않은 개인 창작자도
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겠습니다.
- 피부·네일 등 뷰티 분야는 취업·창업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.
 - 3분기부터 간이과세 적용대상을 이·미용 업종 전체로 확대*하고,
창업환경을 분석해 주는 '창업기상도 서비스'를 제공할 예정입니다.
 - * (現) 피부미용업·기타미용업 중 수도권·광역시 등에 소재한 40㎡ 이상 사업장 제외
- 웨딩 분야는 소비자가 가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
결혼 관련 품목·서비스에 대한 가격표시 의무화 방안을 마련하고,
 - 국립미술관·박물관 등을 맞춤형 예식공간으로 개방하겠습니다.

[중소기업·소상공인 분야, 상생의 디지털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]

- 중소기업·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, 디지털 기술을
활용해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의 편의성도 높이겠습니다.
 - 2월에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상향*하였고,
3월부터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이 실시될 예정입니다.
 - * 연매출 8천만원 미만 → 1억400만원 미만(2.29일 시행령 개정, 7.1일부터 적용)
 - 미성년자에게 술과 담배를 잘못 판 경우 과도한 제재를
받지 않도록 다음달까지 법령 개정*도 마무리하겠습니다.
 - * 식품위생법 시행령, 청소년보호법 시행령, 담배사업법 시행규칙
 - 올해 안에 공공·민원서비스 400여개의 구비서류를 제로화하고,
상반기 안에 인감 요구사무 900여건을 정비하겠습니다.
 - 개인 주도의 건강정보 활용이 확대되도록 의료기관 간 진료기록·
영상정보(CT, MRI 등) 교류에 대한 보상체계도 마련하겠습니다.

[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방안]

- 신산업 분야의 규제혁신과 현장애로 해소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.
 - 현재 거주자간 원화로만 가능한 이머니(페이) 선물하기 등을 외환도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해 나가겠습니다.
 - 로봇을 활용한 소득에 대해서도 증명서를 발급하고, 순찰로봇 운용지침을 마련하는 등 서비스 로봇 시장을 창출하겠습니다.
 - 국민생활과 밀접한 신산업·신서비스 시장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.
 - 농지에 설립되는 수직농장에 농지보전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,
 - 디지털의료기기는 시장에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*하는 등 진입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.
- * 혁신 의료기술 선정 후 후속조치 단축(40일 → 20일)
- 자동차운전학원에 요구되는 시설을 갖추지 않은 사업자도 운전면허 보유자에게 도로연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.

[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]

- 끝으로,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.
 - 일정규모 이상 해외 온라인 플랫폼은 국내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하도록 하고,
 -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위해물품·가품 등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해외직구 종합대응 TF를 구성(국조실 2차장 주재)해 원팀으로 대응하고, 필요시 추가 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.
- 이어서, 안전과 관련해 중기부 장관, 공정위원장의 자세한 말씀이 있겠습니다. (중기부 장관, 공정위원장 모두발언)
- 지금부터는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.